

1 개요

월정본향당본풀이는 구좌읍 월정리의 본향당에 얹힌 전승이다.

기자불공하여 태어난 황정승 따님이 구령이로 변신한 탓에 무쇠상자에 담겨 버려지자 자신을 발견한 낚시꾼에게 조상신으로 대우받다가 다시 여자로 환생하여 배필을 만나 혼인하여 살다가 돼지고기 금기를 어긴 탓에 별거하게 되었다는 내용이다.

2 내용

옛날 황토고을 황정승(黃政丞)이 40세까지도 자식이 없어 불공을 드려 딸을 얻었다. 황정승이 벼슬살이를 떠날 때 일곱 살 된 딸이 아비를 쫓아가다가 들에서 그만 길을 잃고 구령이 몸으로 환생한다. 딸이 행방불명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황정승이 급히 돌아와 딸의 방문을 열어보니 큰구령이가 서리어 있었다.

황정승은 구령이를 무쇠상자에 담아 바다에 띄워버렸다. 상자는 물 위에 3년, 물 속에 3년 떠다니다가 뒷개[北村] 복덕개에 닿았다. 김첨지(金僉知) 영감이 새벽 불락 낚으러 나섰다가 상자를 발견하고 열어보았다가 큰 구령이가 들어 있음을 확인하고 깜짝 놀랐다. 그 바람에 구령이는 영감의 딸 삼형제에게 흉험(凶驗)을 주어 일시에 병이 들게 하였다.

김첨지가 점쟁이에게 물으니 구령이를 모셔야 된다고 하였다. 정성스럽게 제물을 마련하여 구령이를 대우하니 딸 삼형제가 모두 병이 나았다. 이에 김첨지는 구령이를 조상신으로 모시려고 하였다. 구령이는 김첨지 집 뒷곁으로 가서 좌정하였다.

구령이는 그 날 밤에 여인으로 환생(還生)하였다. 스스로 점을 보니 제주 남방국 신산국이 천상배필(天上配匹)이 됨을 알았다. 신산국을 찾아나서 돌아다니다가 월정리 비석거리에 이르러 신산국을 만나 서로를 확인하고 혼인하였다.

신산국은 사냥하러 한라산을 돌아다니고 황정승 따님은 일곱 아기를 낳아 돌보며 살았다. 황정승 따님은 아이들을 데리고 동네 구경 다니다가 돼지 발자국에 고인 물을 마셨다. 이때 돼지털이 코에 박히니 빼내어 불에 그을리고 손바닥에 놓아 부벼서 먹었더니 마치 고기를 먹은 듯하였다.

사냥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신산국이 부정한 냄새가 난다고 캐묻자 황정승 따님은 사실대로 일렀다. 신산국은 함께 살 수 없다며 살림을 가르자고 하고, 황정승 따님과 일곱 아기를 서당머체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살게 하였다. 황정승 따님이 떠나는 신산국에게

살 방도를 마련해달라고 하자 신산국은 주민들에게 두통, 복통 등 온갖 병을 일으켜서 얻어먹으라고 일러주었다.

황정승 따님은 주민들에게 갖가지 병을 일으켜서 주민들로부터 dot제로 대우받기 시작하였다. 사람들은 서당머체에 자리잡은 황정승 따님을 서당국부인이라고 하였다. 신산국은 정월 열사흘날에는 자신이 있는 당커릿당으로 와서 함께 대제를 받으라고 일러두고 마을로 갔다. 그리고는 마을 유지를 불러 모아 자신을 제향하도록 하였다.

3 특징

구좌읍 행원리 이중춘 구연본이다. 주신은 신산국인데 이야기는 전반적으로 서당국부인을 중심으로 하여 짜였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전반부는 황정승 따님의 출생과 상주표착, 후반부는 신산국과 서당국부인의 혼인과 별거로 이루어져 있다. 전반부는 칠성본풀이와 대동소이한 내용을 갖추었다.

기자불공하여 태어난 아기씨가 벼슬살이 떠나는 아비를 쫓다가 길을 잃고 구렁이로 환생하며 다시 무쇠상자에 담겨 바다에 버려진 뒤에 제주도에 이르러 신으로 대접받는다고 한 점에서 매우 유사하다. 후반부는 가장 보편적인 당신본풀이의 내용을 갖추었다. 남신과 여신이 만나 혼인을 하고 살다가 여신이 돼지고기 금기를 어긴 탓에 살림을 가르고, 남신은 본향신이 되고 여신은 이렛당신이 된다고 하는 점에서 전형적인 줄거리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4 핵심어

황정승, 구렁이, 김첨지, 신산국, 서당국부인, 당커릿당, 서당머체, 돼지털, 두통, 복통, dot제, 대제, 유지

5 원전 서지사항

월정본향당본풀이(현용준·현승환, 《제주도무가》,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6)

6 관련 자료